

제2차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동 심포지엄

第2回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

2023년 9월 5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2023年 9月5日(火) 韓国プレスセンター記者会見場

주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主管: 自由統一のための国家大改造ネットワーク

국민의례

国民儀礼

국기에 대한 경례
国旗への宣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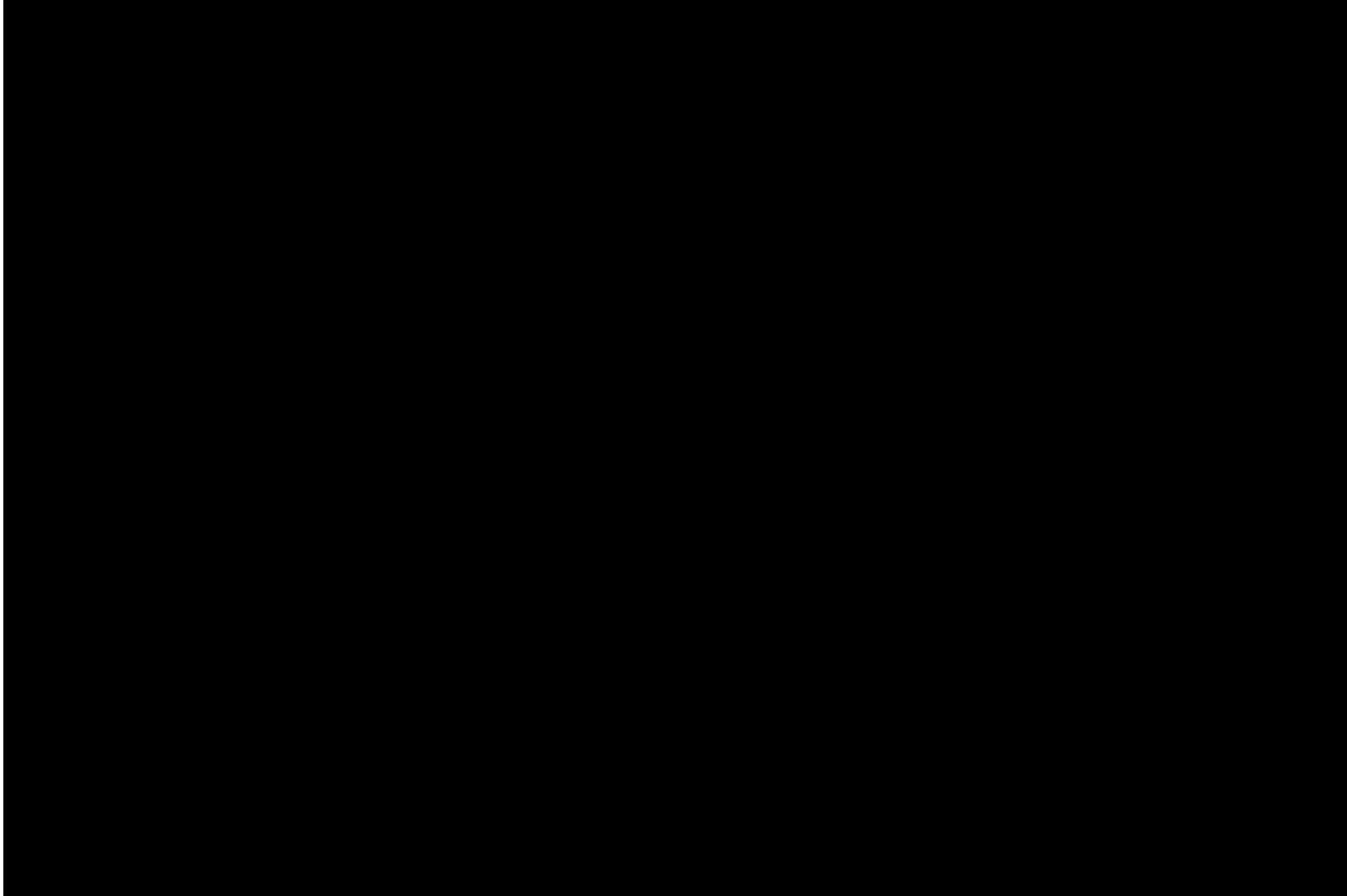
국가 제창
国歌斉唱



편성 강화중

국가 제창

国歌斉唱





환영사 歓迎の辞

김학성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대표
金学成 自由統一のための国家大改造ネットワーク代表



축사 祝辭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李榮薰 李承晩學堂校長

축사

祝辭

이영훈

李榮薰

이승만학당 교장

李承晩學堂 校長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동 심포지움
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
본에서 오신 세 분의 연구자들을 환영합니다.

日本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の
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この大会に参加するた
めに、日本から来られました3人の研究者を歓迎いた
します。

여기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해 힘써온 마음의 동지들입니다.

ここに集まった韓国と日本の皆さん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正しい理解と解決のために努めてきた心の仲間たちです。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지 벌써 32년입니다.
그 사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이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日本軍慰安婦問題が発生してからすでに32年です。
その間、韓国と日本の友好関係はこの問題によって
深刻な損傷を受けました。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성립해 있지 않습니다.

短くない歳月が流れ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ではまだこの問題に対する正しい認識が成立していません。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1937-1945)에 일본의 경찰이나 헌병이 조선의 여자들을, 심지어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납치하거나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まだほとんどの韓国人は、アジア・太平洋戦争期（1937-1945）に日本の警察や憲兵が朝鮮の女性たちを、さらに若い女の子たちまで、強制的に拉致したり連行して慰安婦にしたと知っています。

위안부에 관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위안부에 관한 특별 학습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慰安婦に関する中・高校歴史教科書がそう教えています。小学校では慰安婦に関する特別学習が施行されたりもしました。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지적하여 날조된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거나 시련에 봉착하였습니다.

しかし、これは事実ではありません。率直に指摘して、捏造された歴史と言えます。何人かの勇気のある学者たちがこれらの事実を指摘したとし、大きな試練に遭遇しました。

몇몇 사람은 원 위안부나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 사람은 그가 종사한 대학으로부터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一部の人は、元慰安婦や彼らを支援する団体から名誉毀損の疑いで訴えられました。何人かは自らが従事した大学から追放されたりもしました。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과학으로서 역사학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社会的に完全に埋葬された人もいます。このような過去30年間の歴史を振り返ると、この国では近代科学をもとにした真の意味での歴史学はまだ成立していないことがわかります。

이 나라의 역사학은 아직도 전근대의 종족적 적대 감정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사학뿐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이 그러합니다.

この国の歴史学はまだ前近代の種族的敵対感情に深く取り込まれています。歴史学だけでなく、すべての人文・社会科学がそうです。

또한 이 나라의 무책임한 언론은 그러한 종족주의 언설을 끊임없이 증폭하고 재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また、この国の無責任な言論は、そのような種族主義の言説を絶えず増幅して再生してきました。去る2019年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歴史で一つの大きな分岐点でした。

저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출판한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소는 당시 민간에서 제도적으로 영위되던 공창제가 전시기에 전선으로 이동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私は同僚の研究者と共に出版した「反日種族主義」という本で、日本軍慰安所は当時民間で制度的に営まれていた公娼制が、戦時期に戦線に移動したことを明確にしました。

위안소의 위안부는 민간 공창제의 창기나 작부와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위안부가 모집되는 방식이나 경로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가 모집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慰安所の慰安婦は、民間遊廓の娼妓と変わらない身分でした。慰安婦が募集される方法や経路は、民間の娼妓が募集されるそれと少し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

우리들의 이 같은 주장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문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널리 이 사회의 구석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私たちのこのような主張は韓国社会に大きな波紋を
起こしました。その波紋は今も消えず、ますます広
くこの社会の隅にまで広がっています。

이래 지난 4년간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해 온 위
안부 운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以来、過去4年間、両国の友好関係を阻害してきた慰
安婦運動は大きく萎縮しました。

운동 주체인 정의연(구 정대협)의 회계 부정 사건도 큰 원인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運動主体である正義連の会計不正事件も大きな原因でしたが、それに劣らず、普通の国民が慰安婦問題の真相を少しずつ知り始めたというのも重要な原因でした。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위안부에 관한 교과서의 엉터리 서술이 고쳐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은 모두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が行くべき道はまだ遠くて険しいです。慰安婦に関する教科書のでたらめな記述が訂正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全国で建てられた慰安婦少女像は、すべて一日早く撤去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습시다만, 하루빨리 복구되어야 합니다.

両国政府が合意して設置された和解・癒やし財団は、過去の文在寅政府によって解散されましたが、一日でも早く復旧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동 재단의 남은 기금은 위안부 문제로 크게 손상을 입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同財団の残りの資金は、慰安婦問題で大きく損なわれた両国間の友好関係を癒す事業に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를 위해선 지난 32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크게 오도된 과정과 전후 사정에 관한 국정조사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には過去32年間、日本軍慰安婦問題が大きく誤解された過程と、前後事情に関する国政調査レベルの真相究明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このすべてがいつ行われるのか、私たちは知りません。しかし、私たちは希望を持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오늘의 이 학술 심포지움이 그러한 길을 떠나
는 한국과 일본의 동지들에게 큰 힘과 약속이 되리
라고 믿고 있습니다.

本日この学術シンポジウムが、そのような道を歩む
韓国と日本の同志たちに大きな力と約束になると信
じて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축사 祝辞

스기하라 세이시로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杉原誠四郎 国際歴史論戦研究所会長

祝 辞

축 사

杉原誠四郎

스기하라 세이시로

国際歴史論戦研究所 会長

국제역사논전연구소 회장

まずは、慰安婦は性奴隷でないという立場の韓日の研究者が集まり、史上初の韓日共同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に当たり、大なる慶賀の意を表します。

우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의 한일 연구자가 모여 사상 최초의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큰 경하의 뜻을 표합니다.

公教育の教科書から慰安婦の記述を削除するため、このシンポジウムを主宰された韓国の研究者集団の皆様に、日本側を代表して厚く感謝の意を表します。

공교육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기술을 삭제하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주재하신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께 일본 측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振り返れば、1973年に日本の毎日新聞記者が『従軍慰安婦』なる図書を発行し、1982年に日本の朝日新聞が慰安婦を強制連行したという嘘の記事を書き、

되돌아보면 1973년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간행하고 1982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하였다는 거짓 기사를 쓰면서

慰安婦問題は韓日双方において猖獗を極めました。
。しかし現在は「従軍慰安婦」の「強制連行」
なるものは存在せず、性奴隷ではなかったことが
完全に証明されています。

위안부 문제는 한일 쌍방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군위안부'의 '강제 연행'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결코 성노예가 아니었던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にもかかわらず、教科書には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とする記述があり、韓日の友好を妨げています。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술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한일의 우호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韓国は、主権を回復して約75年、日本もアメリカ軍による占領を解除されて主権を回復して約70年、両国は現在、アジアにおける、自由と人権を守る強力な民主主義国となっています。

한국이 주권을 회복한 지 약 75년, 일본도 미군에 의한 점령이 해제되어 주권을 회복한 지 약 70년, 양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両国は手を取り合って、世界における人類の課題の解決に貢献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になっていきます。

양국이 서로 손을 잡고 세계 및 인류의 과제 해결에 이바지해 나가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韓国と日本の傍らには、つねに力の限り横暴に振る舞う中国が存在しています。中国は現在、法の支配に基づく民主主義国ではありません。

한국과 일본 곁에는 늘 공격적이고 강권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법의 지배에 근거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中国での法というのは、為政者が人民に向けていかようにも定め、いかようにも適用するところの、支配の道具としての法でしかありません。

중국의 법이라는 것은, 위정자가 인민을 대상으로 제멋대로 정해 놓고 멋대로 적용하는 지배 도구에 불과합니다.

しかし我々民主主義国の法は自由を守り、人権を守り、民主主義を守るための法です。すなわちそれは「法の支配」という観念のもとにある法です。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자유 및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법의 지배’라는 관념 하에 있는 ‘법’입니다.

韓国と日本はアジアの強力な民主主義国として、
ともに手を携え、世界の人類の発展に貢献してい
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
께 손을 잡고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합니
다.

本日はそうした両国のあいだで喉の棘となっ
てい
る慰安婦問題で、歴史的事実に基づき教科書から
慰安婦の記述を排除していこうというシンポジウ
ムであります。

오늘은 그러한 양국 간에 목젯가시가 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과서로부터 ‘위안부’의
기술을 없애자고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これを十分に成功させて、韓国と日本の友好をさらに深め、そして世界に貢献していくよう努めていきましょう。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더욱 심화하여 세계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축사 祝辞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영상)

J. 마크·람자이어 하버드大学로스쿨教授(映像)



축하메시지

경과보고 經過報告



주옥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대표

朱玉順

慰安婦詐欺清算連帶代表

경과보고

經過報告

주옥순

朱玉順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대표

慰安婦詐欺清算連帶代表

안녕하십니까?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대표이자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입니다.

こんにちは。

慰安婦 詐欺清算連帯の代表そして「お母さん部隊」
の代表の朱玉順です。

저는, 과거 2009년부터 한일관계의 위험성을 인식
하고서, 현재까지도 좌우가 극한으로 대치중인 대
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엄마부대’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私は、過去2009年から韓日関係の危険性を認識し、
現在までも左派右派が極限に対峙している大韓民国
を守るために「お母さん部隊」という市民団体を結
成し、

이때부터 윤미향과 법적 싸움으로 집행 유예까지 받으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この時から尹美香氏との法的争いが始まり、執行猶予まで受けながら闘ってきました。

지난, 문재인 좌파정권의 반일 선동의 중심축이던 이 위안부 문제에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수시로 북한을 방문한 전력이 있던 친북성향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文在寅 左派政権の反日扇動の中心軸だったこの慰安婦問題には、過去の金大中・盧武鉉政権時代に随時北韓を訪問した前歴のある親北朝鮮の女性が含まれていました。

그렇기에 단순한 위안부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9
년부터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앞장서서 싸웠던 대
표적인 시민단체인,

そのため、これは単なる慰安婦問題にとどまる事案
ではない重大な問題だと思いました。 そのような渦
中、2019年度からこの慰安婦問題の先頭に立って闘
ってきた代表的な市民団体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나, 지금도 전국을 다니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과 같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력이 절실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反日銅像真実究明共対委」や、今も全国を巡回しながら慰安婦問題の真実を訴えている「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といった様々な市民団体との連携と協力の必要性を切実に感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후, 2022년 초에, 드디어 뜻을 같이 하는 9개 시민 단체가 모여서 ‘위안부사기청산연대’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以後、2022年当初に、ついに志を同じくする9つの市民団体が集まり「慰安婦詐欺清算連帯」という名前で公式発足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여러분!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한일 외교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었던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국제사기였습니다.

皆様！これまで30年以上も韓日外交を破綻の境地に追いやった慰安婦問題は明白な国際詐欺でした。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흉물 동상을 만들었던 김운성·김서경 작가부부는 13세~15세의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11살짜리 어린 딸까지 모델로 세워서

「平和の少女像」という凶物銅像を作ったキム・ウンソン作家夫婦は、13歳~15歳の幼い少女たちが慰安婦だったと主張し、自分の11歳の幼い娘をモデルにしてまでこの

이 위안부상을 제작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오로지 반일선동용 거짓 조형물인 것입니다.

慰安婦像を制作しましたが、これは歴史的事実にも全く符合しないただの反日扇動のための偽りの造形物に過ぎないのです。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 거짓 조형물을 앞세워가며 이 동상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여 벌써 국내에 150개

，
ところが、正義記憶連帯ではこの偽りの造形物を前面に掲げ、この銅像こそ「世界平和と女性の人権」を象徴するものだ と美化し、すでに国内に150個、

해외에도 30개가 넘게 설치하였고 이 동상을 통해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분노를 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海外にも30個以上設置し、この銅像を通して日本に対する漠然とした敵意心と怒りを誘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하지만,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거짓 동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는 커녕, 오히려 저들에 의해 강요된 반일 적개심과 원한,

しかし、この「平和の少女像」という偽りの銅像により私たちは「平和」ではなく、むしろ彼らによって強要された反日敵愾心と恨み、

그리고 과거 치욕스런 우리 역사만을 재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そして過去の恥辱的な韓国の歴史だけを再確認することになるだけです。

이러한 저들의 날조된 위안부 운동과 선동에 저항하기 위해 탄생한 우리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회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소 각자 맡은 자리에서
このような彼らの捏造された慰安婦運動と扇動に抵抗するために結成した私たち「慰安婦詐欺清算連帯」の会員は、今後も変わることなく、平素各々の立場で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며 위기 시에는 언제나 모두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真実と正義を正すために最善を尽くして闘い、危機的時期には常に皆が一つになり、力を合わせて共に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致し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발표 1
発表 1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구대 객원교수

西岡力
麗澤大学客員教授

발표 2

発表 2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柳錫春

元延世大学教授



뉴데일리

제2차 한일합동심포지움
2023년 9월 5일, 2pm
한국프레스센터

위안부 문제의 사법화

역사 논쟁에서 법적 다툼으로

류석춘 (전 연세대학 교수)

램자이어 교수와의 인연은 동병상련

ラムザイヤー教授との縁は同病相憐

오늘 발표는 램자이어 교수가 제이슨 교수와 공동으로 출간할 영어로 된 위안부 책에 발표자가 기고한 서문 (Foreword) 을 기초로 합니다. 램자이어 교수가 미국에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5월 램자이어 교수가 메일로 저에게 Foreword 를 써 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전혀 망서리지 않고 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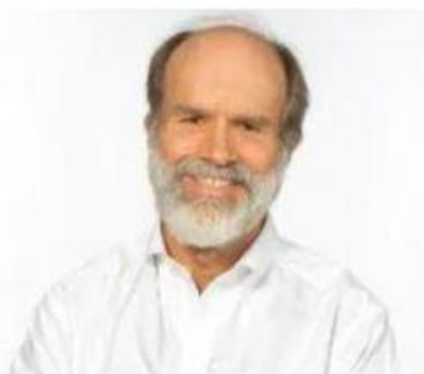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저는 연세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식민지 역사를 두고 토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급기야 지금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램자이어 교수를 알게 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の発表は、ラムザイヤー教授とモーガン教授が共同で出版する予定の慰安婦関連の本に、私が書いた前書きを基にしています。ラムザイヤー教授が米国で私と似たよう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ので、私は今年の5月、彼がメールで本の前書きを書いてほしいと頼んできた時、迷わず応じました。

ご存知のように、私は延世大学の講義で、学生たちと植民地の歴史をめぐって討論したことが問題となり、挙げ句の果てに名誉毀損刑事事件の被告人として裁判を受けています。次の章からはラムザイヤー教授と出会った過程と、私が経験したことを一つ一つ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위안부, 성노예 아닌 성매매" 美 하버드대 교수 논문 파문

입력 2021-02-01 20:28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 > 연예

하리수, 하버드대 교수 논문에 분노 "위안부가 성매매? 인간이 돼라"

입력 : 2021.02.02 09:16 | 수정 : 2021.02.02 11:17



가수 하리수가 위안부를 성매매라고 표현한 하버드대 교수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사설] 전범기업 지원받는 미국 학자의 '위안부' 왜곡

등록 : 2021-02-03 17:33 수정 : 2021-02-08 16:28



이름수(왼쪽)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9년 11월 13일 서울 연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백승미 기자

정치 : 외교 | 위안부

"위안부, 성노예 아닌 매춘" 하버드 교수 논문 파문...日 "큰 의미"

중앙일보 | 입력 2021.02.01 18:41 업데이트 2021.02.16 14:57

고석현 기자

구독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진 하버드대]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며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장본인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다. 그는 오는 3월 출간 예정인 법·경제 관련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3월 출간 예정)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투고했다.

지난달 28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동의를 받아 논문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 칼럼]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과 싸우는 지식인들 출현 ... 일본도 이들과 연대해 위안부 문제 거짓말 일소에 나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1.03.02 15:20:37

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モロロジー研究所教授、麗澤大学客員教授・西岡力 2021.3.1



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に設置された従軍慰安婦の被害者像(1月8日(其四))

戦前わが国は公娼制度を持っていた。慰安婦はそれを戦時で持ち込んだものだ。慰安婦となった女性たちは異国の犠牲者だった。そのことは日本人も韓国人もみな知っていた。ところが1990年代(戦後)日本の一部反日勢力が、日本軍が国家総動員法に基づく強徴(いしん)強として(慰安婦)のよう(に)朝鮮女性を連行し慰安婦にさせたという荒唐無稽な嘘を大々的に発信した。

《嘘と戦う韓国の学者ら》

▲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21년 3월 1일자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하 칼럼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J. Mark Ramseyer¹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29 August 2020

Received in revised form 28 October 2020

Accepted 28 November 2020

Available online 1 December 2020

Keywords:

Prostitution

Indentured servitude

ABSTRACT

The protracted politic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wartime brothels called comfort stations obscures the contractual dynamics involved. These dynamics reflected the straightforward logic of the credible commitments so basic to elementary game theory. The brothel owners and potential prostitutes faced a problem: the brothel needed credibly to commit to a contractual structure (i) generous enough to offset the dangers and reputational damage to the prostitute that the job entailed, while (ii) giving the prostitute an incentive to exert effort while working at a harsh job in an unobservable environment.

Realizing that the brothel owners had an incentive to exaggerate their future earnings, the women demanded a large portion of their pay upfront. Realizing that they were headed to the war zone, they demanded a relatively short maximum term. And realizing that the women had an incentive to shirk, the brothel owners demanded a contractual structure that gave women incentives to work hard. To satisfy these superficially contradictory demands, the women and brothels concluded indenture contracts that coupled (i) a large advance with one- or two-year maximum terms, with (ii) an ability for the women to leave early if they generated sufficient re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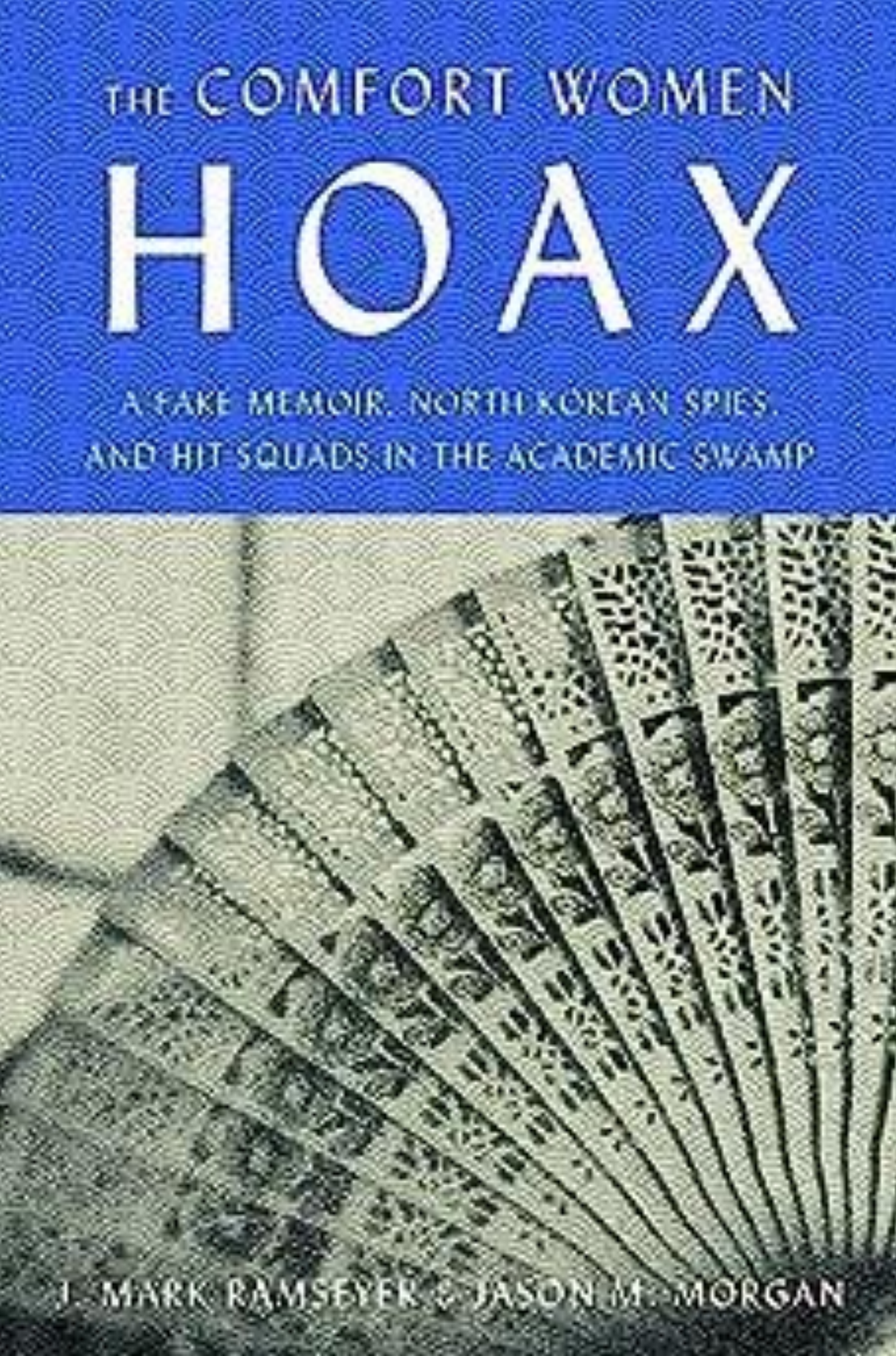
J.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Harvard Law School

J. マーク・ラムザイヤー
ハーバード大学法科大学院
三菱日本法学教授



ジェイソン・モーガン
麗澤大学国際学部准教授

Jason Morgan,
associate professor,
Reitaku University in
Kashiwa, Japan



THE COMFORT WOMEN

HOAX

A FAKE MEMOIR, NORTH KOREAN SPIES,
AND HIT SQUADS IN THE ACADEMIC SWAMP

J. MARK RAMSEYER & JASON M. MORGAN

Forthcoming

amazon

Deliver to
Republic of Korea

Books ▾

Search Amazon

≡ All

Today's Deals

Customer Service

Registry

Gift Cards

Sell

The Comfort Women Hoax: A Fake Memoir, North Korean Spies, and Hit Squads in the Academic Swamp

by J. Mark Ramseyer (Author), Jason M. Morgan (Author)

Kindle
\$24.99

Read with Our **Free App**

Hardcover
\$32.99

1 New from \$32.99

✓ **Pre-order Price Guarantee.** [Terms](#) ▾

Both of the authors found themselves savagely "canceled" by their peers in Japan for following the Woke line on the World War II "comfort women." Contrary to the propaganda, the women were not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And the notion that they were perpetrated by a Japanese communist author in the 1980s. Any serious Japanese person understands this, and many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understand it as well. It is the hyper-politicized humanities departments that they continue to cling to this 19

Buy new: **\$32.99**

Delivery **December 12 - 19**

Or fastest delivery **December 7 - 12**

📍 [Deliver to Republic of Korea](#)

**This title will be released on
December 5, 2023.**

Qty: 1 ▾

Pre-order now

Class Topic: Colonial Modernity (1910-1945)

- Farmlands were sold
- Rice was traded
- Labor was migrating to Japan under Contract
(Drafted only for the last 9 months, still paid)
- Comfort Women Issue
(정신대挺身隊 vs 위안부慰安婦)

Korean Dictionary 韓國語辭書 (韓英)

August 27, 2023
(searched)

VER 사전 파파고 오픈사전 PRO 참여번역 지식백과

홈 영어 국어 한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영 더보기

사전 유의어사전

어사전 정신대

고급 검색

전체 단어·속어 뜻풀이 예문 영영사전

연관검색어 위안부

단어·속어 2

정신대挺身隊

comfort women, the group of young women taken to Japanese rape camps during World War II

慰安所 慰安所 慰安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기관·단체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두산백과 두피디아

2019 September ~
2020 Spring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 중징계...柳 "가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출처 박순중 기자 | 최초승인 2020.05.07 11:15:55 | 최종수정 2020.05.07 20:45 | 댓글

관련기사

경향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경향

"명목적 통치" 반대 시민단체 류석춘 교수 징계 여부 검토중인 연

"위안부" 발언 류석춘 교수, 한국당 탈당... "한국당이 시류에 편승"

시민단체 "천체주의 국가의 비밀경찰 떠오른다" 경향의 '류석춘

[특포]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前 교수 공판 발청기 "檢

연세대 "류석춘 교수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서 배제" 징계 관

류석춘 교수 징계 검토중인 '광우인권위' 규탄성명 "중지 않은 선

류석춘 교수 "학생들에게 매춘을 권유했다고?" 위안부 관련 입장

"강제" 내용으로 재판 대하민국 중세 안출기 "위안부" 발언 류

연세대 "류석춘 교수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데 동의했고 수강생들도 '성인지 사건'으로 인식했다" 연세대, 수업 도중 수강생과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표현 문제 삼아 同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에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류석춘 교수 측 "녹취 파일 등 사건의 객관적 입증 자료에서 대학 측이 징계 근거로 삼은 사실 확인 안 돼... 행정소송도 불사(不辭)"



연세대학교 (사진=박순중 기자)

연합뉴스

연세대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

송고시간 | 2019-10-10 19:26

류석춘 교수의 성폭력 발언 사과/ 류석춘 교수 파면 촉구 집회

#류석춘은_사과하라 #류석춘을_파면하라

일시: 10월 10일 (목) 오후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정문

YONHAP NEWS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

세계일보

뉴스 이슈 비즈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저속은행이라 다 민족행

"교육자 자격 없다"... 류석춘 성토장 된 '수요시위'

기사입력 2019-09-25 23:00:00
기사수정 2019-09-25 19:52:31

가

'매춘' 발언 "친일 망언" 비판 쏟아져 / '아베 규탄' 680여개 시민단체 연합 / 연세대 찾아가 "교수직 파면하라"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06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류석춘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아시아경제

지면편집 그대로, 원하는 뉴스를 보고 듣는
아시아경제 오디오페이퍼

연대 출신 의원들 "류석춘 파면하라...모교에서 몰상식 용납못해"

박철웅 기자
입력 2020.01.16 11:24

읽는 시간 48초

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법학 83) 박범계(법학 85) 송영길(경영 81) 송옥주(신방 83) 안호영(법학 84) 이상호(국문 81) 우원식(토목 76) 유동수(경영 81) 윤후덕(사회 76) 이규희(법학 81) 조정식(건축 82), 민주평화당 황주홍(정의 73), 바른미래당 신용현(물리 79), 정의당 김종대(경제 84)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이 2018년 4월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金正은의 3차 남북정상회담 사진 31장을 2018년 4월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朝鮮中央通信が、2018年4月に開かれた文在寅大統領と金正恩の「第3回南北首脳会談」の写真31枚を、2018年4月29日に公開した。連合ニュース



2019 August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재익

전화 02-3270-4394 / 팩스 02-3270-4310

보 도 자 료

2020. 10. 29.(목)

제 목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금일(10. 29.) 「○○대학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및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A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B단체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 A○○(○○대학교 교수)

2 공소사실 요지

- '19. 9. 19. ○○대학교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 위 강의 중 'B단체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 위 강의 중 'B단체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B단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명예훼손]

II 수사 경과

- '19. 9. 23. C시민단체, 서울서부지검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
- '19. 10. 1. B단체, 서울서부지검에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
- '20. 3. 31. 서대문경찰서, 사건 송치
- '20. 4. ~ 10. 피의자 조사, 관련자료 확보, 판례 및 법리 검토 등
- '20. 10. 29.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모욕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III 향후 계획

-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음 ☑

정의기억연대



10월 29일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9월 강의 중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挺身隊問題 対策協議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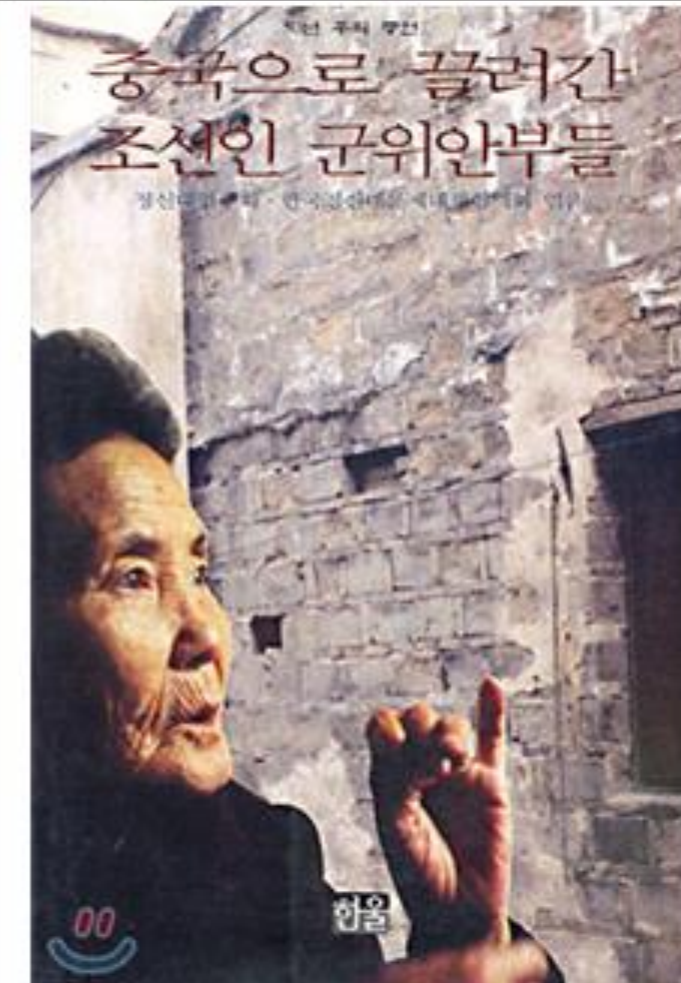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6권.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シリーズ全6巻.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2권.

「中国に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シリーズ全2巻.

1993~2014



이용수 증언 李容洙の証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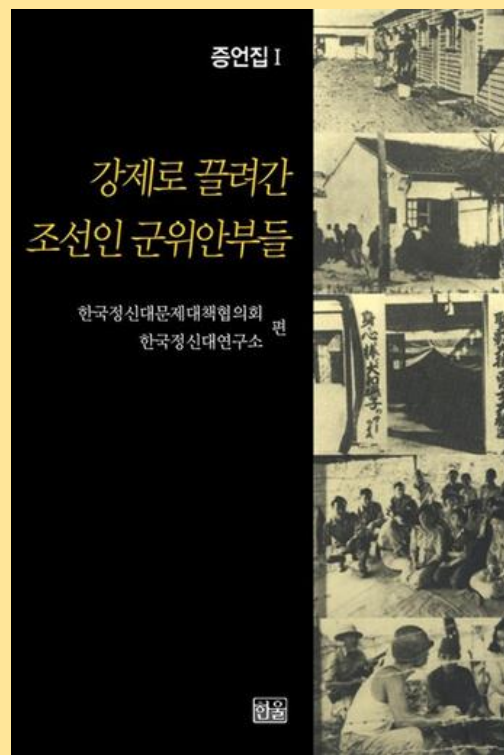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I』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
軍慰安婦たち 証言集I」

(한울) (ハンウル)

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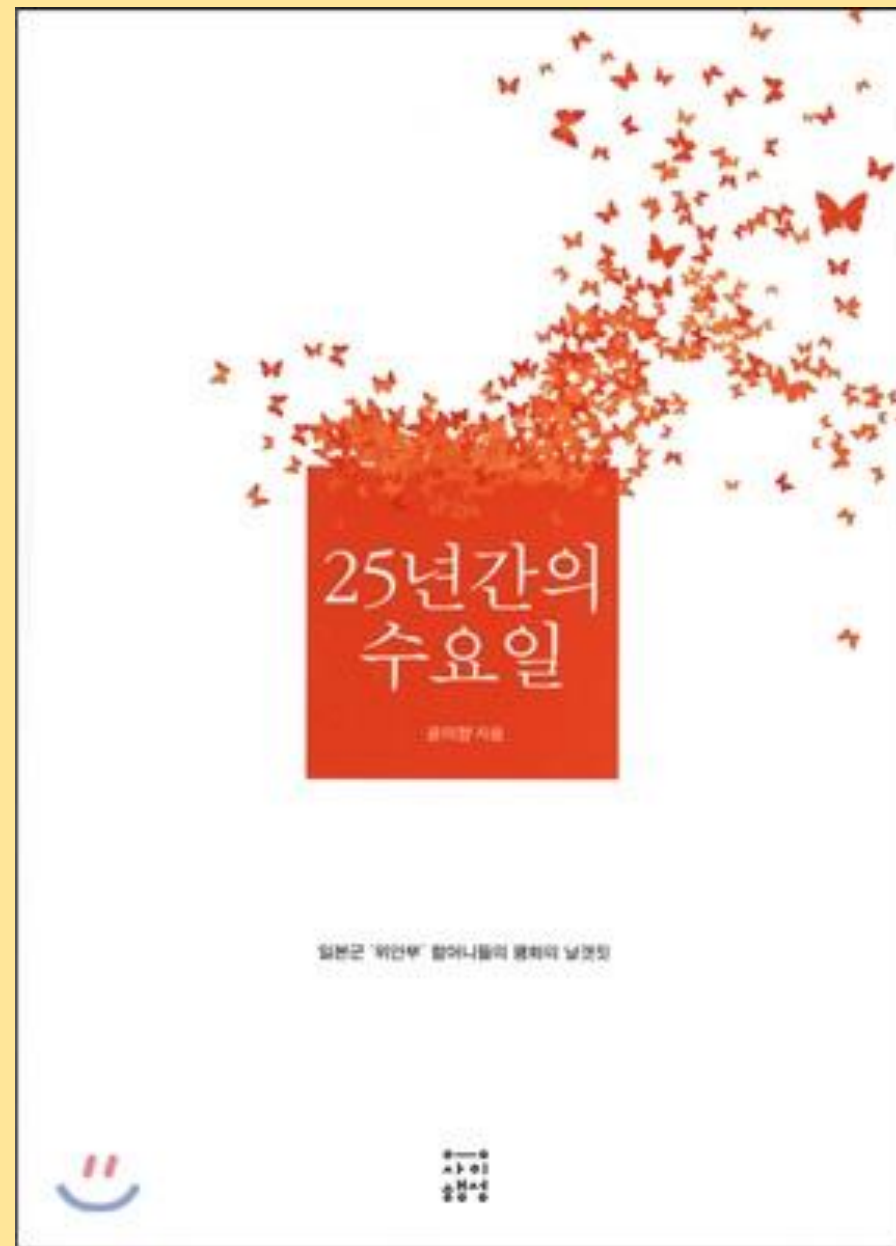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새벽, 분순이가 우리집 봉창을 두드
리며 “가만히 나오너라” 하며 소곤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 통치마에
단추 달린 긴 면적삼을 입고 계다를 끌고 있었다. 가서 보니 강가
에서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
였다.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통이 하나
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통이
를 살짝 들쳐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
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 나까지 합해 처녀가 모두 다섯
명이었다.

그 길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경주까지 갔다. 그때 나는 생
전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았다. 경주에 가서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
여관 앞 개울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산비탈에 보라색 꽃이 한송
이 피어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이어서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니
까 도라지꽃이라고 했다. 거기서 이튿밤인가를 지냈는데 또 여자

124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赤いワンピースと革靴が見えた。それをもら
い幼心にどれほど喜んだかわからない。それで
つい他のことも考えず、気軽について行くよう
になった。」

윤미향, 2016, 『25년 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에 실린 이
용수 증언 (p. 48).



“나는 우리 어무니(어머니), 아버지(아버지)가 붙여 준 엄연한 이용수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어떻게 내가 그 더러운 일본
군의 ‘위안부’입니까? 나는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
려갔습니다. 나는 위안부가 아닌 이용수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尹美香が2016年に出版した「25年間の水曜日」
に載っている李容洙の証言 (p. 48)

「私は夜寝ていたところ強制的に日本の軍人に連行されました。」

이용수 증언의 변화 李容洙証言の變化

왼쪽 左:

February 2007,
미 의회, 米議會
SBS (2017 10 11)

오른쪽 右:

KBS (1999 8 15)
KBS 韓国放送公社

<https://www.youtube.com/shorts/e80bn8CZ5qE>



Professor's 'Comfort-Women' Lecture Gets Him Indicted—And Sparks Debate on Academic Freedom

Low Seok-choon's comments about World War II-era sex slaves led to defamation charges and put him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classroom speech

By [Timothy W. Martin](#) [Follow](#) and [Dasl Yoon](#) [Follow](#)

Aug. 21, 2021 7:00 am ET

 Share

 Resize

 **Listen** (2 min)

PHOTO: YONHAP NEWS/ZUMA PRESS

[Bookmark] In South Korea, Lew Seok-choon Case Sparks Crisis in Academic Freedom

Criminal charges are filed against a sociology professor for his class discussion ab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s effect on South Korea's development.

Published 2 years ago on September 18, 2021
By **Tsutomu Nishioka**



How a Class Debate on Comfort Women Turned into a Big South Korean Witch H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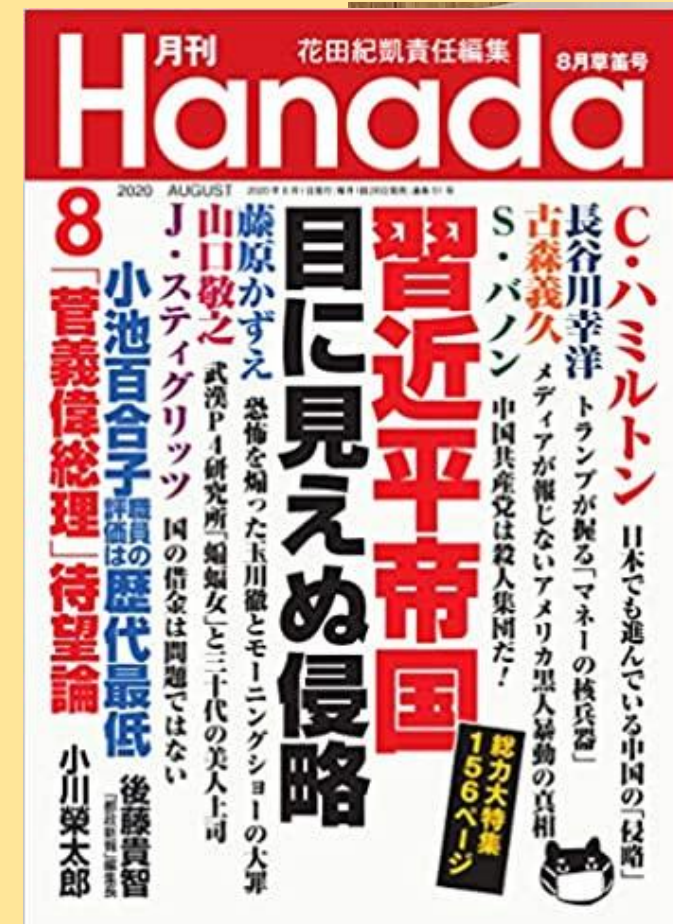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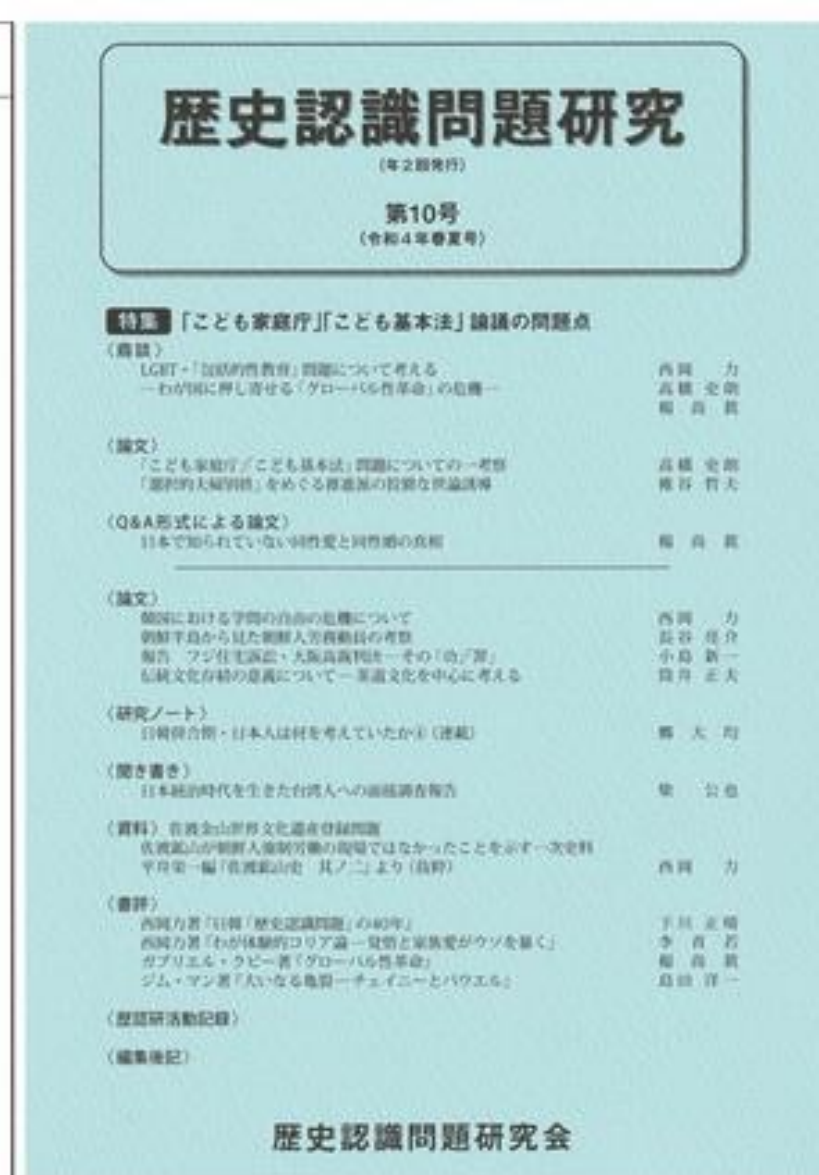
Professor Lew Seok-choon is facing charges of defaming former comfort women during a classroom debate, but the prosecution has failed to provide ev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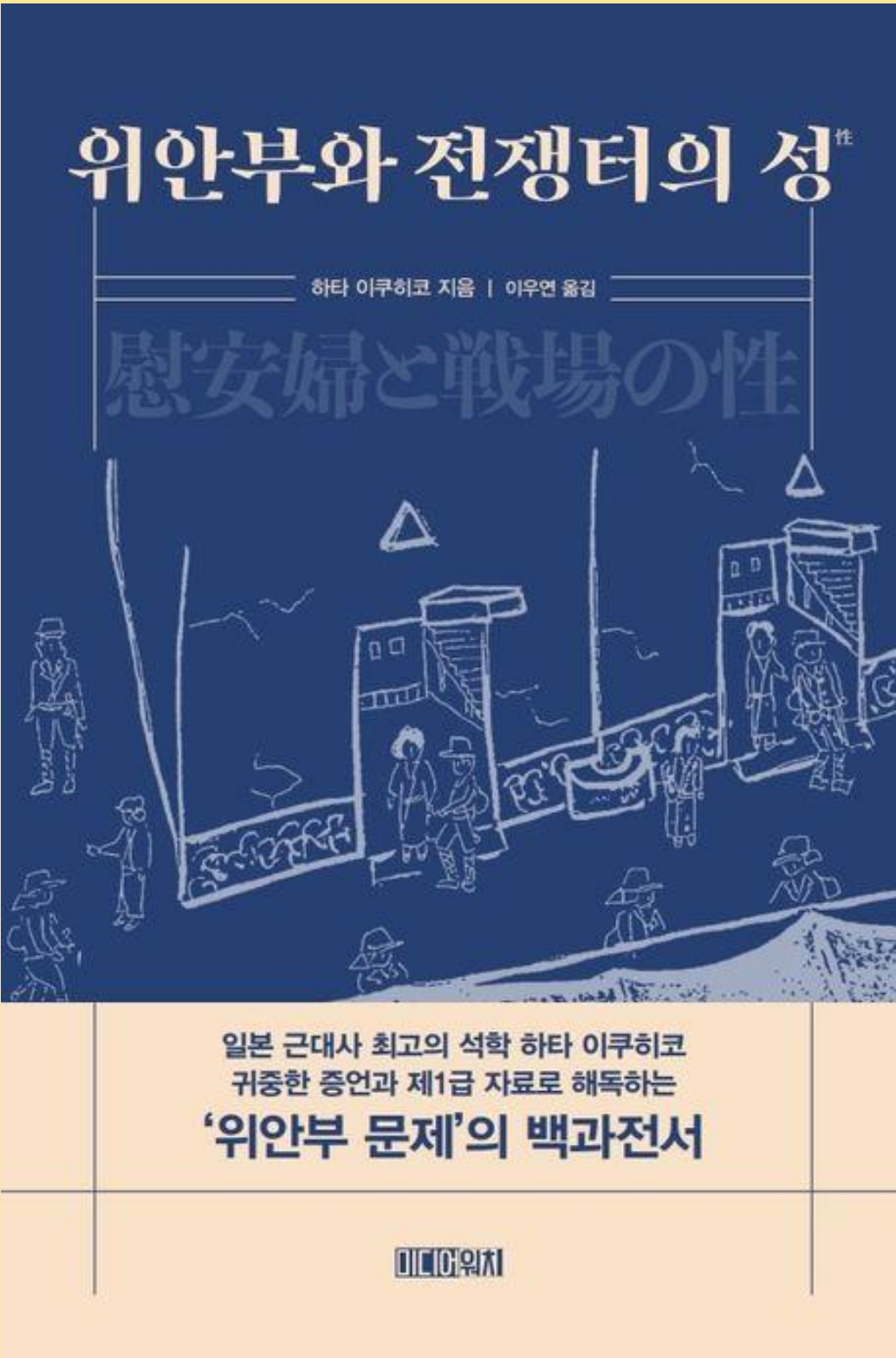
Published 3 months ago on May 26, 2023
By **Kenji Yoshida**



Dr Law Sook-choon (© Law Sook-choon)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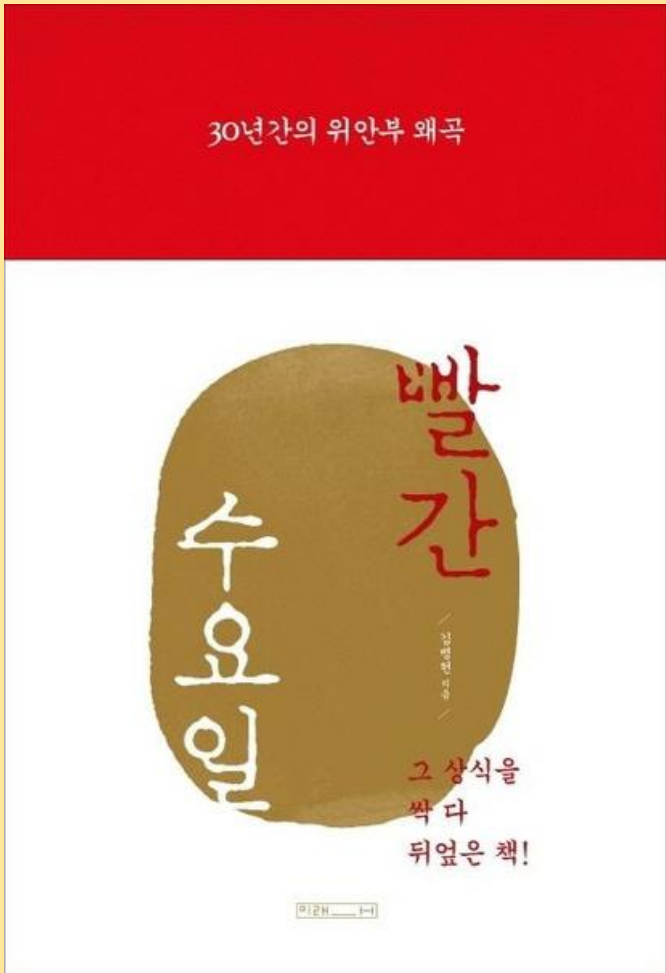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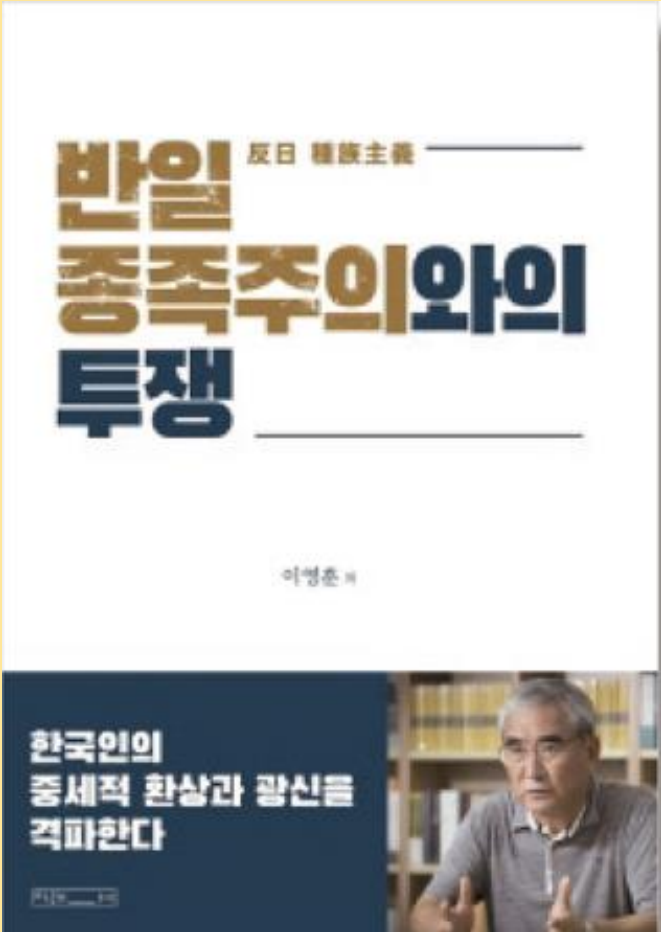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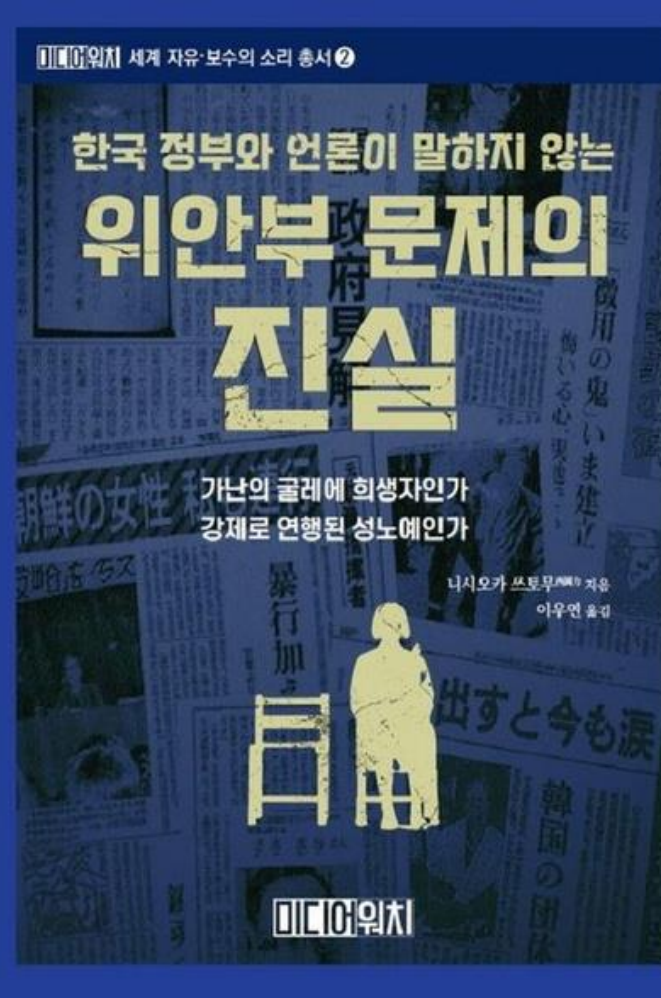
2021

2013

2019,
2020



2021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

作家・吉田清治氏の証言

그의 거짓말에 보증을 서준
일본내 반일 세력의 성채, **아사히 신문!**

從北反日

정의 기억 연대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

정대협 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미디어워치의 활약 韓国メディアウオッチの活躍

고노 담화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믿지 마십시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진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북한 위안부의 일방적 증언과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증언을 그대로 삼키면서 위안부 문제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주장하고 있다. 날조 보고서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고노 담화의 진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는 한국에 아첨하려는 의도로, '강제성'의 개념을 모호하게 기술한 궤변 입장문이다. 하지만 실은 고노 담화에서조차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출신 위안부의 물리적 강제연행은 부정되고 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진실!

천황과 일본 정부가 유죄라고?
알아둬야 할 남북공동검사단의 정체!

박원순 남측검사
남북공동검사단

2021

- * 북측 검사들은 북한 공무원으로 확인돼 이후 일본에서 입국금지가 됐다!
- * 남측 검사 박원순은 성희롱 의혹 등 스캔들 문제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위안부 첫 증언자, 김학순! 일본군이 강제연행을 했다고?

“나는 친모에 의해 먼저 기생으로 팔렸고
이후 양부에 의해 다시 위안부로 팔렸다.”

/한겨레신문 1991년 8월 15일자

[단독] 대법원 “정대협을 ‘종북(從北)’이라 부를 수 있다” 본지 최종 승소

대법원, 정대협의 상고 기각...정대협 종북 관련 18개 쟁점서 전부 미디어워치 손 들어준 사법부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0.02.27 16:43:28

이제 정대협과 그 대표 윤미향 씨를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명)와 윤미향 상임대표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거가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 논란, 머릿수로 진리 정할 것인가”

“럼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학술적인 상호비판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결여된 것이 많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1.03.06 17:21:03

‘위안부 논문’ 하버드 로스를 럼자이어 교수의 학적 소신을 지켜주려는 한일 지식인들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하 ‘국기연’) 기획위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국기연 ‘이번주 직언(今週の直言)’ 코너에서 럼자이어 교수 논란을 다뤘다.

니시오카 교수는 ‘미국 교수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에 문제있다(米教授「慰安婦」論文への批判に問題あり)’ 제하 글을 통해 “럼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학술적인 상호비판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결여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칼럼]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거짓말과 싸우는 지식인들 출현 ... 일본도 이들과 연대해 위안부 문제 거짓말 일소에 나서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1.03.02 15:20:37



▲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21년 3월 1일자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하 칼럼

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TF 사진관]

입력: 2022.11.23 12:32 / 수정: 2022.11.23 15:14

서울서부지방법원



検察、
「慰安婦売春発言」
柳錫春に
懲役1年6ヶ月
求刑

사건발생 1년을 넘긴 2020년 11월 검찰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공판 끝에, 2023년 3월 22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재판을 공전시킨다고 선언.

事件発生から1年が過ぎた2020年11月、検察が「虚偽事実による名誉毀損」の疑いで起訴して以来、これまで十数回の公判の末、2023年3月22日の裁判を最後に裁判官は次のような**二つの理由**で裁判を空転すると宣言。

1) 엇비슷한 경우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박유하 교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1심 무죄, 2심 벌금 1천만원, 대법원 계류 6년째),

2)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

1)似たような事件として必ず参考にするべき、**パク・ユハ教授の事件**に対する最高裁確定判決がまだ出ていないこと(パク氏は1審無罪、2審罰金1千万ウォン、最高裁係留6年目)

2) 事件を起訴した検事が、当然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慰安婦強制連行の証拠」**を未だ提出していないか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真理があなた達を自由にする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던 검찰은 어디에?

‘公訴維持に万全を期す’と言っていた検察はどこに？

이용수 증언 번복 李容洙証言の變化

李容洙を連れて行った軍人は 覆面マスクをした特殊部隊要員！



“1943年の夏のある日、鼻と目しか見えない帽子をかぶった軍人が私たちを連れて行った。どこに行くのか、何故連れて行くのか分からなかった。私は神風性奴隷を思い出すだけでも....”

2015. 3. 12. 大邱MBC講堂

발표 3

発表 3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액션 대표

山本優美子
なでしこアクション代表

発表3

山本 優美子 야마모토 유미코

「慰安婦＝性奴隷」 に利用される国連 ・ I L O ・ 그네스코

‘위안부=성노예’라는 인식에 이용된 UN, ILO, UNESCO



UN 국제연합



ILO 국제노동기구



UNESCO 유네스코



序論

韓国を愛し誇りに思う韓国の皆様、 日本を愛し誇りに思う日本の皆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한국인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일본인 여러분!



序論

正義と真実を重んじる両国の愛国者が、慰安婦問題を糾す為に今日ここに集まりました。

정의와 진실을 중시하는 양국의 애국자들이 위안부문제
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序論

私は皆様と共に 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できることを大変光栄に思います。主催者の方々、準備をしてくださった方々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최자분들, 준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序論

さて、「日本軍慰安婦は、強制連行された性奴隷」と主張する人たちは、「国際連合やILO（国際労働機関）の国際機関が認めている。だから事実だ」といいます。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UN 그리고 ILO의 국제기구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序論

本当でしょうか？本日、私は「慰安婦は性奴隷」を広めたい人たちによって利用される国連、ILOそしてユネスコ（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について発表します。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위안부는 성노예’를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UN, ILO, 그리고 UNESCO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序論

最初に、皆さんに知ってほしい、重要なことを二つ申し上げます。

우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序論

一つめは、多くの人、「国連とILOでは、専門家が徹底的に調査と研究をして、慰安婦は性奴隷だと結論を出したのだろう」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첫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UN 그리고 ILO에서는 전문가가 철저히 조사와 연구를 해서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序論

実は全く違います。一次資料に基づく調査や研究はしていません。すべて左派のNGOや労働組合が、国連やILOに送った意見書の影響です。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자료에 근거한 조사나 연구는 없었습니다. 모두 좌파 NGO와 노동조합이 유엔과 ILO에 보낸 의견서의 영향입니다.



序論

簡単に言いますと、左派団体の「告げ口」の結果です。長年、国連とILOに届い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情報は左派団体の意見だけでした。

간단히 말해서 좌파 단체들의 ‘고자질’ 결과입니다. 오랜 세월 UN과 ILO에 보고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보는 좌파 단체의 의견 뿐이었습니다.



序論

偏った情報や嘘の話をもとにして、国連の委員会から勧告が、ILOの委員会からは見解が発表されてきたのです。

편향된 정보나 거짓말을 바탕으로 유엔 위원회로부터 권고가, ILO위원회에서는 견해가 발표되어 온 것입니다

.



序論

二つ目の重要なことはユネスコです。今、ユネスコでは「慰安婦は性奴隷」と定義する記録物が登録されてしま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態になっています。

두 번째 중요한 것은 UNESCO입니다.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위안부는 성노예'로 정의한 기록물이 등재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序論

これは絶対に阻止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では、これから、国連、ILO、ユネスコについて順番にお話しします。

이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UN, ILO, UNESCO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UN

1 国連～ 人権条約の委員会における 慰安婦問題

1. UN～ 인권조약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안부문 제



UN

国連において、「慰安婦は性奴隷」という表現はいつから始まったのでしょうか。それは、1992年に日本人の戸塚悦朗という弁護士が「性奴隷」と表現したのが始まりです。

UN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1992년에 일본인 토츠키 에츠로라는 변호사가 ‘성노예’라고 표현한 것이 처음입니다.



UN

私たち研究所の藤木俊一氏が、戸塚氏にインタビューしたことがあります。その時、戸塚氏は慰安婦を性奴隷と表現したのは 「勘だよ」 と言ったそうです。

우리 연구소의 후지키 슌이치씨가 토츠카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즈카씨는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UN

「性奴隷」と言ったら注目を浴びたと、自慢げに話したそうです。「性奴隷」の始まりは「勘」なのです。

‘성노예’라고 말했더니 주목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노예’의 시작은 그냥 ‘느낌’입니다.



UN

1996年、国連特別報告者のクマラスワミ氏が報告書を発表しました。この報告書が「性奴隷の証拠だ」という人もいます。

1996년 유엔특별보고자인 쿠마라스와미씨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성노예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UN

たしかに、報告書では「日本軍慰安婦は軍の性奴隷制」と定義しています。この報告書に対して、当時の日本政府は反論書を作りました。

확실히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군의 성노예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는 반론서를 만들었습니다.



UN

その反論書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このような報告書は国連の人権委員会に提出するのは不適切である。」

그 반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UN

「国連の人権委員会は、不十分な事実認識と誤った国際法の解釈に基づくこの報告書を否定すべきである。」

‘유엔 인권위원회는 불충분한 사실 인식과 잘못된 국제법 해석에 근거한 이 보고서를 부정해야 한다.’



UN

その理由は、「日本政府に批判的な書籍からの記述を引用し、裏付け調査を行っていない。」

그 이유는,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서적으로부터 기술(記述)을 인용해, 근거가 되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UN

「直接聞いていない元慰安婦の話を証言にしている。客観的な資料を無視し、十分な事実確認を行わず、極めて限定された資料に基づいている。」

‘직접 듣지 않고 구 위안부의 이야기를 증언으로 수용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극히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UN

「法的な主張は国際法に基づいておらず、誤っている。」この反論書は素晴らしい内容なのですが、日本政府は一度配布したのに、批判を畏れて回収し、非公開にしてしまいました。

‘법적인 주장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아 잘못이다.’ 이 반론서는 훌륭한 내용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한 번 배포했다가 비판이 두려워 회수한 뒤 비공개로 해버렸습니다.



UN

何とも情けないことです。今からでもこの反論書を公開すべきです。また、国連には人権条約に関する10の委員会があります。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반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에는 인권조약에 관한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UN

これらの委員会が日本政府に「慰安婦は性奴隷」、「救済措置をとれ」、「教科書で教える」と勧告しているから事実だ、という人もいます。

이러한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는 성노예’, ‘구제조치를 취하라’, ‘교과서로 가르쳐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UN

確かに、自由権規約委員会、強制失踪委員会
、人種差別撤廃委員会、女子差別撤廃委員会、
社会権規約委員会、拷問禁止委員会

분명히 자유권규약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금지위원회



UN

の委員会で、慰安婦問題が取り上げられ、「総括所見」に日本政府に対しての勧告が書いてあります。私はこれらの委員会に提出されたNGO意見書を調べました。

등의 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취급되어 ‘종합 소견’에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 제출된 NGO의견서를 조사했습니다.



UN

委員会についても調べて、会議にも何度か参加して、現場を見てきました。それぞれの委員会には十数名の委員がいます。年に2~3回、一か月ほどの会期があります。

위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해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위원회에는 십 수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년에 2~3회 한 달 정도 회기가 있습니다.



UN

その一か月の間に、条約を締結している約170か国のうちの10カ国ほどの国を審査します。一つの国について数十項目の人権問題が提起されています。

그 한 달 동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약 170개국 중 10개국 정도의 국가를 심사합니다. 한 나라에 대해 수십 가지 항목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UN

従って、委員は日本という国の「慰安婦問題」だけについて詳しく調査、研究できないし、しません。そこで、NGOからの意見書を参考にします。

따라서, 위원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안부 문제’만 자세히 조사 연구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NGO 의견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UN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長年にわたり、沢山の
左派N G Oが意見書を送っていました。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좌파
NGO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UN

日本弁護士連合会、わたし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日本女子差別撤廃条約NGOネットワーク、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新日本婦人の会、などです。

일본 변호사연합회,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일본 여자차별철폐조약 NGO 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신일본 부인의 모임 등입니다.



UN

韓国の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も、熱心に意見書を送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N G Oの意見書を委員が参考にして日本政府への勧告となっていました。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열심히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NGO의 의견서를 위원이 참고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UN

日本政府にも問題があります。 委員会から「慰安婦は性奴隷の被害者である」と勧告された当初、日本政府は何と回答していたか。

일본정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위안부는 성노예의 피해자다’라고 권고 받을 당시 일본정부는 뭐라고 회답 했는가.



UN

「慰安婦問題は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傷つけた問題だ. 慰安婦の方々へ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てきた」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문제다. 위안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해 왔다.’



UN

「アジア女性基金を設立し、元慰安婦に償い金を支給し、首相が公式なお詫びの手紙を送った」 こんな回答では、日本が悪かったと認め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구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총리가 공식 사과 편지를 보냈다.’ 이런 대답으로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UN

日本政府は、慰安婦についての歴史的事実の説明もせず、委員会の理解が間違っていることの指摘もしませんでした。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위원회의 견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2014年になって、ようやく、日本政府は国連で初めて性奴隷を否定しました。今では外務省の公式サイトで「性奴隷、強制連行、20万人」を否定しています。

2014년에야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성노예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외무성 공식 사이트에서 ‘성노예, 강제 연행, 20만 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UN

しかし、一旦広まってしまった「性奴隷」の嘘は、なかなか覆せません。初期の日本政府の対応が大きな誤りでした。

그러나 일단 확산된 성노예의 거짓말은 좀처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초기 대응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ILO

2. ILO～ 強制労働条約における慰安婦問題

2. ILO ~ 강제노동협약의 위안부문제

次にILO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다음으로 ILO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ILO

「ILOでも慰安婦は強制労働条約違反だと認定されている」と主張するひとがいます。私は、ILOの年次報告を1994年版から2022年版まで調べました。

‘ILO에서도 위안부는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ILO 연례 보고를 1994년판부터 2022년판까지 조사했습니다.



ILO

分かったことは、ILOの委員会も国連の委員会も同じような仕組みだということです。ILOには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という委員会があります。この委員会がILO年次報告を発表します。

알게 된 것은 ILO 위원회도 유엔 위원회와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ILO에는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ILO 연차 보고를 발표합니다.



ILO

委員は毎年一回集まり、3週間ほどで I L O 加盟国187カ国が条約を守っているかを審査します。私膨大な量です。そこで、各国の労働組合からの意見を参考にします。

위원들은 매년 1회 모여 3주 정도면 ILO 회원국 187개국이 조약을 지키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각국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ILO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1996年に初めて、大阪の教員組合がILOの委員会に意見書を送っていました。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처음으로 오사카 교원 조합이 ILO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ILO

「慰安婦は、戦時の性奴隷の被害者である」
、「日本は強制労働条約に違反している」と
いう意見書です。いったい誰が最初に I L O
に訴えようと考えたのでしょうか？

‘위안부는 전시 성노예 피해자다’, ‘일본은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였다’라는 의견서입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ILO에 호소하려고 생각했을까요？



ILO

それはあの「勘」で性奴隷と言った戸塚悦朗
弁護士です。

그것은 그 '느낌'으로 '성노예'라고 말한 토츠키 에츠로
변호사입니다.



ILO

1996年以降、多くの労働組合が慰安婦問題と戦時強制労働についてILOに意見書を送りました。

1996년 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위안부 문제와 전시 강제노동에 대해 ILO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ILO

実は、一番多く意見書を送っていたのは韓国
の「韓国労働組合総連盟」と「全国民主労働
組合総連盟」です。

사실 가장 많은 의견서를 보낸 곳은 한국의 '한국노동
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ILO

労働組合からの意見をうけて、ILOは年次報告書の中で、日本政府に「慰安婦に対する責任を受入れて、救済の措置を講じることを望む」という見解を出しました。

노조의 의견에 따라 ILO는 연차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 구제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LO

日本政府は何と答えたか。 「韓国が受けた損害と苦しみを認め、遺憾と反省をくりかえしてきた」これでは、まるで日本が悪かったと認めたかのようです。

일본 정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국이 입은 손해와 고통을 인정하고 유감과 반성을 거듭해 왔다.’ 이래서는 마치 일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ILO

2019年になって日本政府は初めて、ILO委員会に対して「慰安婦の強制連行」を否定しました。否定するのが遅すぎです。慰安婦問題が取り上げられた時すぐに反論すべきだったのです。

2019년에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ILO** 위원회에 대해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을 때 바로 반박했어야 했습니다.

3. 그네스코～ 「世界の記憶」における慰安婦問題

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
最後に그네스코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ユネスコに「世界の記憶 Memory of the World」という事業があります。

유네스코에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重要な記録物（文書や石碑・地図・製図・絵画・音楽・映画・テープ・写真など）を保存し、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目的の事業です。

중요한 기록물(문서나 비석, 지도, 제도, 회화, 음악, 영화, 테이프, 사진 등)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たとえば韓国の「朝鮮王朝の王室璽と冊封書のコレクション」（2017年）、日本の「東寺百合文書」（2015年）が登録されています。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왕조 왕실 옥새와 책봉서 컬렉션'(2017년), 일본의 '동사백합문서'(2015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6年に、この「世界の記憶」に「慰安婦の声」というタイトルの申請が提出されました。
。「慰安婦は性奴隷」と定義した申請で、9カ国の15団体が共同で申請したものです。

2016년에 이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로 정의한 신청으로 9개국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9カ国とは、韓国、中国、台湾、日本、オランダ、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ティモールと英国で、中心となっているのは韓国と日本です。

9개국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티모르와 영국이며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申請された記録物は、日本軍慰安婦制度に関する資料、慰安婦問題解決活動の資料など、2,744点もあります。

신청된 기록물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자료,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 자료 등 2,744점이나 됩니다.

自称元慰安婦たちの活動の記録もこの中に含まれています。そこで、この申請の登録を阻止するために、私たちも対抗して申請をしました。

자칭 구 위안부들의 활동 기록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의 등록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대항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私たちの申請タイトルは「慰安婦と日本軍の規律」です。日本軍は規律を守って慰安婦に接していた、つまり、慰安婦は性奴隷ではない、という申請です。

우리의 신청 제목은 ‘위안부와 일본군의 규율’입니다. 일본군은 규율을 지켜 위안부를 접촉하고 있었으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신청입니다.

「性奴隷」と「そうではない」という対立した二つの申請があるので、2017年にユネスコは「双方が話し合ってください」と勧告しました。

‘성노예’와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대립된 두 가지 신청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유네스코는 ‘양측이 논의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これから、韓国を中心とする「慰安婦の声」申請グループと私たち「慰安婦と日本軍の規律」申請グループが慰安婦に関する申請をどうするか、話し合いを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
이제부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의 소리' 신청 그룹과 저희들 '위안부와 일본군의 규율'을 신청한 그룹이 위안부에 관한 신청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現在は話し合いの日程や条件を調整中です。

「慰安婦の声」は、韓国と日本が中心となつて登録を進めようとしています。

지금 현재는 논의 일정이나 조건을 조율 중입니다. '위안부의 소리'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私たちも韓日の専門家・研究者が協力して、
このユネスコ「慰安婦＝性奴隷」登録を必ず
阻止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저희들도 한일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협력해서 이 유네
스코 ‘위안부=성노예’ 등재를 반드시 막고 싶습니다.



結論

4. おわりに

4. 마지막으로

慰安婦問題は、初めに日本人が火を着けました。

위안부문제는 첫 번째 일본사람이 불을 지폈습니다.



結論

火は国連から国際社会に広がり、韓国も一緒に火を煽りました。弱腰の日本政府は火を消そうとしませんでした。

불은 유엔에서 국제사회로 번졌고 한국도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주눅 든 일본 정부는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結論

今でも、国連で火を煽り続けているのは日本人です。慰安婦はいました。 貧しい中でも、家族の為に、生きるために懸命に働きました。

。 지금도 유엔에서 불을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위안부는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結論

その慰安婦が政治利用され、国際機関を使って嘘が広まり、外交問題・安全保障問題にも影響が出ました。

그 위안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국제기구를 통해 거짓말이 확산되면서 외교 문제와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結論

何よりも、教科書に嘘が記述され、韓国の子どもたちには日本に対する憎しみを植え付け、日本の子どもたちには自国に誇りを持たなくなる教育に使われています。

무엇보다 교과서에 거짓말이 기술되어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일본 어린이들에게는 자기나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結論

天国にいる元慰安婦の方々は、こんなことは望んでいないはずです。慰安婦問題は私たちの世代で終わらせなくてはなりません。

하늘 나라에 계신 전 위안부분들은 이런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위안부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結論

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韓国と日本の良識ある人たちで力を合わせていきましょう。このシンポジウムが、未来ある韓日関係に繋が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심포지엄이 미래의 한일관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 및 증언집 낭독

記念写真撮影と証言集の朗読

[証言集朗読]

金順徳(仮名 金徳眞)

挺対協 証言集(1)

朗読: 朴世媛-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幹事

내가 열 일곱 살 때(1937년)의 음력 정월 보름인가 2월 초쯤 되었을 때였다. 취직시켜 준다고 처녀들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던 평촌에서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다.

私が17歳の時（1937年）の旧暦の正月15日か2月初め頃だった。就職させてあげるから娘たちを募集するという話を聞いた。前にも私たちが住んでいた坪村から数人を連れて行ったという。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갈 걸’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평촌’으로 조선인 남자가 일본 공장
에서 일할 여자들을 모집하러 또 왔다는 말을 들었
다.

その噂を聞いて「私も行けばよかった」と思っ
ていた。 そんな折、「坪村」に朝鮮人の男が日
本の工場で働く女性を募集しにまた来たという
話を聞いた。

나는 ‘평촌’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일본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 사람에게 떠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 받은 후, 삼가면의 우리 집으로 돌아와 일본에 갈 준비를 했다.

私は「坪村」に行きその人によって日本へ行く約束をした。その人と出発の場所と時間を約束した後、三嘉面の実家に戻って日本へ行く準備をした。

당시는 지금 같지 않아 세상이 어수룩했고, 특히 학교도 다니지 않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공장에 돈 벌러 가는 줄만 알았고 그것이 위험하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当時は今のようではなく世の中がぼんやりしていて、特に学校にも通っていない私は何も知らなかった。工場にお金を稼ぎに行くだけで、それが危険だとは夢にも思わなかった。

떠나는 날, 약속 장소인 의령의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평촌에서 모집하러 왔던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우리를 부산까지 인솔했다. 떠나는 날에는 합천, 마산 등지에서 온 여자들이 30명쯤 되었다.

出発の日、約束の場所の宜寧のバス停に出て来た。坪村から募集に来た人が出てきた。この人は私たちを釜山まで引率した。出発の日には陝川、馬山などから来た女性たちを合わせて30人ほどになった。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여러 층이었고 그 중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 여자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남편이 일본에 있다고 했다.

歳が私より少ない人、多い人、いろいろな年齢層がいて、中には結婚して子供を産んだことのある女性もいた。 そんな女性たちはたいてい夫が日本に行っていると言った。

이 여자들과는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
내 함께 있었다. 명령으로 빈 버스가 와서 우리 일
행만 태우고 갔다.

この女性たちとは後で朝鮮に戻るまでずっと一
緒にいた。 宜寧に誰も乗っていないバスが来て
私たち一行だけを乗せて行った。

정암다리를 지나면서 우리는 울면서 “정암다리야
~ 잘 있거라. 돈 벌어 올 때까지 너 잘 있거라” 라며
,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鼎岩橋を通り過ぎながら私たちは泣きながら「
鼎岩橋よ~さようなら。 お金を稼いでくるまで
お前は元気でいなよ」と、抱き合って泣いた。

계급이 아주 높은 군인들을 위해서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을 골라 차에 태워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다. 이런 중에, 나도 불려가 ‘이즈미’라는 군인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階級の高い軍人たちのためにきれいで頭もいい女性たちを選んで車に乗せて部隊内に連れて行ったりもした。そんな中、私も呼ばれて「泉」という軍人と親密な関係を結ぶことになった。

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 이 사람은 손가락 다섯 개를 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아마 쉰 살 정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계급도 아주 높아 보였다.

私が何歳かと聞くと、この人は指5本を広げて見えた。私は心の中で「たぶん50歳くらいだろう」と思った。階級も非常に高そうだった。

・이즈미'를 만나기 위해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나
・이즈미'와 함께 밖에 바람 쐬러 나갈 때면 군인들이 양옆으로 줄을 섰다. 그리고 총을 높이 들고 무엇이라 큰 소리로 외쳐 댔다.

「和泉」に会うために部隊の中に入る時や「和泉」と一緒に外へ散歩に行く時は 兵士たちが両側に列をなした。そして銃を高く持ち、何かを大声で叫んだ。

・이즈미의 방은 넓었고 그 안에 큰 침대가 있었으며 번쩍거리는 총과 군복이 있었다. 어깨에는 번쩍번쩍하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和泉」の部屋は広くてその中に大きなベッドがあり、きらめく銃と軍服があった。肩にはキラキラ光る階級章がついていた。

이 사람은 전투가 잠잠하여 시간이 날 때는 졸병을 시켜서 나를 불러들여 이삼일 간 자기 방에서 재웠다. 전투가 있을 때는 몇 달간 소식이 없다가 잠잠해지면 자주 불렀다.

この人は戦闘が落ち着いているときは卒兵に私を呼びにこさせて二、三日間自分の部屋で寝かせた。戦闘がある時は数ヵ月間消息がなかったが、また落ち着くと私を頻繁に呼んだ。

부대가 먼저 이동해서 위안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면 배를 태워 데려가기도 했다. '이즈미'를 자주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아버지 겸 남편 겸, 한 식구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部隊が先に移動して慰安所から遠く離れている時は 船に乗せて連れて行ってくれたりもした。

「和泉」と頻繁に会って私はこの人を父親兼夫兼家族のよう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

숫자와 일본어도 직접 손을 붙들고 가르쳐 주는 등
나에 대한 '이즈미'의 애정은 극진했다. 매일매일 사
랑한다고 말했고, 전쟁이 끝나면 일본에 데리고 들
어가서 고생 안 시키고 학교도 보내 주면서 같이 살
것이라고 늘 말했다.

数字と日本語も直接手をつないで教えてくれるな
ど、私に対する「和泉」は私を深く愛してくれた
。「毎日愛してる」と言ったし、戦争が終わっ
たら日本に連れて行って苦労しないで学校も 送
りながら一緒に暮らす」といつも言っていた。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위안소 생활을 한 지 3년쯤 지난(1940년) 2, 3월경, '이즈미'는 내가 자주 아프고 전쟁도 점점 위험하게 될 것 같으니 안되겠다고 하면서 고향의 집에 돌아가라고...

朝鮮に戻った後も手紙のやり取りを続けた。慰安所生活をして3年ほど経った（1940年）2、3月頃、「和泉」は自分が病気がちだし、戦争もますます危うくなりそうだから故郷の家に帰れと...

가 있으면 꼭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조선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고 해서 같이 있던 친구 네 명과 같이 나가겠다고 했다. '이즈미'는 주인에게 이 다섯 명을 보내라고 했다.

朝鮮に帰っていれば必ず探しに行く」と言った。
。 朝鮮に行く時、誰を連れて行くのかと聞かれて、一緒にいた友人4人と一緒に帰ると言った。
「和泉」は慰安所の主人にこの5人を帰すようにと言った。

높은 군인의 명령이므로 거부할 수는 없으면서도 주인은 나에게 곧 일본이 전쟁에서 이길텐데,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좋은데, 왜 가느냐고 하면서 싫어했다.

偉い軍人の命令なので拒否できないと言いながら、主人は私に「もうすぐ日本が戦争に勝って、そうすればお金ももらえるのに、なぜ帰るのか」と嫌がった。

'이즈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일행 다섯 명이 떠나게 되었다. '이즈미'는 나중에 일본으로 불러서 돈을 줄지 모르니 여기로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위안소에서 돈도 받지 못하고 떠나왔다.

「和泉」が人を送って私たち5人がそこを去ることになった。「和泉」は後で日本に呼んでお金をあげるかも知れないからここにはもう来るなと言った。私たちは慰安所からお金ももらえずに立ち去った。

떠날 때, '이즈미'가 100엔을 주어 가지고 나왔다.
'이즈미'는 귀향증을 여러 장 만들어 봉투에 넣어 주었다. 도장이 찍힌 서류 모양이 꼭 호적등본 같았다.

出発するとき、「泉」が100円をくれたので持って出てきた。「和泉」は帰郷証を何枚か作って封筒に入れてくれた。判子が押された書類の形がまるで戸籍謄本のようなだった。

이것을 역에서 보이면 기차를 태워 주고, 기차에서 내리면 트럭이나 배도 태워 주었다. 먹을 것, 잘 곳 등도 불편 없이 해주었다. 어느 역인가에서는 도시락을 우리들 수만큼 주기도 했다.

それを駅で見せたら電車に乗せてくれて、電車から降りたらトラックや船にも乗せてくれた。食べる物、寝る所などにも不便のないようにしてくれた。どこかの駅ではお弁当を私たちの人数分くれたりもした。

중간에 평양인가 어디에서 어떤 조선 사람이 이 사람(이즈미)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途中で平壤かどこかで、ある朝鮮人がこの人（和泉）をどうして知っているのかと尋ねた。

'이즈미'가 준 종이에에는 '이 사람은 군에 와서 일하다가 병이 나서 조선에 병 고치러 가니, 경상남도 어디까지 가는 차편, 식사를 제공하라' 고 써 있었다고 한다. 20일쯤 걸려서 합천군 삼가면의 집으로 돌아왔다.

「和泉」がくれた紙には「この人は軍で仕事中に病気を治しに朝鮮へ行くから、慶尚南道のどこどこまで行く車と食事を提供せよ」と書かれていたという。20日ほどかけて陝川郡三嘉面（ハプチョングン・サムガミョン）の家に帰ってきた。

내가 스무 살 되던 해였다. 집에 와보니 사람들이 수
군대는 것 같고 사는 것도 가난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 '이즈미'에게서는 계속 편지가 왔다. 나도 답장을 했
고 소포도 보냈다.

私が20歳になった年だった。 家に帰ってみると人
々がひそひそ話しているようで、生活も貧しかっ
たのでソウルに上京した。 「泉」からはずっと手
紙が届いた。 私も返事をして小包も送った。

내가 미숫가루, 고춧가루 같은 것을 보내면 잘 먹었다고 하고, 고춧가루는 먹고 매워서 죽을 뻔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편지 철자법이 틀렸다고 하는 등 웃기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私がミスカル、唐辛子粉のようなものを送ったときは美味しく食べたと言い、「唐辛子粉は食べたなら辛くて死にそうになったと、私を殺そうとしたのか」と冗談を言ったり、手紙の綴り方が間違っているとか面白い手紙を書いたりもし

내가 서울로 올라와서 답장을 자주 못했지만 '이즈미'에게서는 편지가 남경에서 몇 년 간 계속 오다가 해방 한두 해 전에 끊어졌다.

私がソウルに来てから返事があまり出せなかったけど「泉」からは手紙が南京で何年間かずっと来ていたが解放（終戦）の1、2年前に途切れってしまった。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